



임수정



손태진



황경선



차동민

출전 4체급 모두 金... 중주국 자존심 지켰다



태권도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모처럼 활짝 웃었다.

태권도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출전 네 체급 모두 금메달을 쓸어 담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금 3, 은 1개,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는 금 2개, 동 2개를 획득했다.

임수정(경희대)의 여자 57kg급과 차동민(한국체대)의 남자 80kg 이상급은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남자 68kg급에서는 손태진(삼성에스원)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여자 67kg급의 황경선(한국체대)은 2004년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2회

임수정·손태진·황경선·차동민 역대 최고 성적

문대성, 아시아 첫 IOC 선수위원 당선 경사도

연속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2004년 아테네 대회 남자 80kg이상급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동아대 교수)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되며 '장외 금메달'을 따는 등 한국 태권도는 베이징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한편 장흥 출신의 차동민(22·한국체대)은 지난 23일 2008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에서 한국에 4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차동민은 이날 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남자 80kg급 결승에서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디스(그리스)를 5-4로 힘겹게 제압했다.

1회전에서 크리스토퍼 모이틀랜드(코스타리카), 2회전에서 아르말 이르가세프(우즈베키스탄)를 연달아 물리친 차동민은 4강에서 앙헬 발로디아 마토스(쿠바)를 1-0으로 꺾고 결승까지 올라왔다.

결승 시작 10초만에 발공격을 허용해 0-2로 끌려가던 차동민은 1라운드 종료 35초 정도를 남기고 1점을 만회한 뒤 곧바로 오른발로 상대 얼굴을 가격하며 2점을 보태 전세를 뒤집었다.

2라운드에서 1점씩 주고 받은 차동민은 3라운드 종료 1분22초 전에 4-4 동점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 18초를 남기고 기습적인 발공격으로 결승점을 뽑아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리듬 체조 환상 연기

24일 베이징 과기대 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 리듬 체조 단체전 종합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선수들이 환상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올림픽 소식

“세계 스포츠 1부 리그 올라섰다”

이연택 위원장 “국제위상 향상”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최대 성적을 낸 것과 관련해 한국이 세계 스포츠 중심국가로 올라섰다고 자평.

이연택 위원장은 대회 폐막일인 24일 낮 중국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거둔 금메달 12개를 넘어서 7위에 오른 것은 한국이 세계 스포츠 1부리그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전체 메달은 31개다. 아테네 대회에 비해 여러 종목으로 메달이 확산한 점, 특히 기초 종목인 수영, 역도와 펜싱 등 새로운 종목에서 세계 기록까지 나온 점, 야구의 세계 제패 등 역사적 기록이 이뤄진 뜻깊은 대회였다. 양 반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국제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볼트,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 위문

○남자 100m를 비롯한 육상 단거리 3개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지난 5월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들을 찾아 위문.

미화 5만달러를 지닌 피해자 구호에 써 달라며 적십자사에 기탁한 볼트는 23일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매니저들에게 뭔가 하는게 좋겠다고 제의했다”며 “특히 피해지역 어린이들은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프스·볼트 두명의 아이콘 배출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와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 등 두 명의 ‘아이콘’을 봤다”며 올림픽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한다

고 평가.

로제 IOC위원장은 24일 오전 메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정리하면서 “대회 진행과 조직위원회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해 크게 만족한다. 선수들도 훌륭한 기량을 보여줘 세계신기록 40개 이상, 올림픽 신기록 120개 이상 작성했다”면서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언급.

이러 “펠프스와 볼트 등 두명의 아이콘을 배출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림픽 TV 시청률이 20~30% 신장된 것에 크게 고무돼 있다”고 설명했다.

中, 김창백 감독 최고외국인 지도자

○중국 여자하키에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선사한 김창백(52) 감독이 중국 여자얼간지 차이나데일리가 선정한 ‘최고의 외국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

이 신문은 김창백 감독에 대해 “최고로 성공한 외국인 지도자로 중북부 중국 대표팀 감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팀을 맡고 있다”고 보도.

1999년 12월부터 중국 대표팀을 이끈 김창백 감독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5위, 2004년 아테네에서 4위를 차지한 뒤 이번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

男 100m 점영 결승선 사진 공개

○국제수영연맹(FINA)과 2008 베이징

올림픽 공식기록책제작사인 오메가가 ‘승부조작’ 시비로 입방아에 올랐던 8관왕의 주인공 마이클 펠프스의 남자 100m 점영 결승선 도착 디지털 사진 4장을 공개.

하지만 육안으로는 여전히 누가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는지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

오메가의 계속요원인 실비오 치아네스는 24일(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각 라인 위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분석해보면 펠프스가 밀로라드 카비치(세르비아)보다 확실히 강하게 터치패드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올림픽 포상금 전달

○전남도가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지역 출신 선수 3명과 감독 1명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결정.

전남도는 배드민턴 혼복에서 금메달을 딴 이용대 선수와 김중수 감독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인 금메달리스트인 주현정 선수에게는 50만원씩, 동메달을 획득한 핸드볼의 김은아 선수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

광주시는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한기주(기아 타이거즈) 선수의 집에 꽃다발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 축하.

시는 한기주가 광주시 산하기관이나 시의 대표선수가 아니라 프로 선수라는 점을 감안, 추후 검토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행복했던 17일 “짜이찌엔(再見·안녕)”

베컴 “2012년 런던에서 만남시다”

베이징 오륜 화려한 폐막식

65의 지구촌을 감동과 환희의 세계로 끌어들이던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마침내 사그라들었다.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개최된 베이징올림픽이 24일 밤 9시(한국시간)부터 주경기장인 귀저티위칭(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폐막행사를 갖고 17일간의 대축제를 마무리했다. ‘광란과 열정’을 주제로 내세운 폐막식은 올림픽을 평안하게 끝낸 기쁨을 신명나게 만끽하는 뒤풀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 공연을 총연출한 거장 장미여우 감독은 “폐막식은 전 세계인이 축제를 즐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폐막식 메시지는 아쉬운 이별을 고하고 4년 후 런던에서 재회를 기약하는 것이다. 3막으로 구성된 폐막식에서 장미여우 감독은 세계 3대 테너 중 한 명인 플라시도 도밍고(67)와 중국 민요의 여왕 송주잉(42)의 합동 공연을 통해 중국과 세계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윈난성 출신 예술단원들의 화려한 춤사위, 소림사 무승 350명의 쿙푸 공연, 전통악기 연주(중국 아쟁) 연주 등은 아직도 중국에 불거리가 무궁무진함을 보여줬다.

30년 개혁 개방의 성과를 상징하는 현대 중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도 빠지지 않았다. 베이징올림픽은 끝이 아닌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폐막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대회 기간 베이징을 뒤덮었던 올림픽기는 201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영국 런던으로 이양됐다.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귀저티위칭 베이징시장에서부터 올림픽기를 전달 받은 뒤 귀저티위칭을 가득 메운 중국민과 전 세계 선수들 앞에서 4년 뒤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런던시는 불세출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이 출연한 8분짜리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방영, 런던의 꿈과 희망을 설렘했고 또 다른 신화에 대한 기대감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줬다.

아르헨티나 대회 2연패 男 미국·女 브라질 ‘金’

나이지리아 1-0 꺾어 **남녀 금메달 나눠 가져**

축구 **배구**

남미 축구의 전통 강호 아르헨티나가 12년 전 결승 패배를 안겼던 나이지리아의 정상을 탈환 시도를 좌절시키고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3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귀저티위칭에서 열린 남자축구 결승에서 앙헬 디 마리아(벤페카)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챔피언 나이지리아를 1-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르헨티나는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2년 전 애틀랜타 대회 결승에서 나이지리아에 패하곤 2-3 역전패를 당해 우승을 놓쳤던 아쉬움을 시원하게 털어냈다.

한편 앞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는 브라질이 벨기에를 3-0으로 꺾고 동메달을 건졌다.

베이징 올림픽 배구에서 나란히 남녀 결승에 진출한 브라질과 미국이 금메달을 1개씩 나눠가졌다.

미국 남자배구 대표팀은 24일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배구 결승 브라질과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를 거뒀다.

대회 초반 휴 매커튼 감독의 장인 피살 사건으로 아쉬웠던 분위기를 딛고 일어난 미국은 예선과 본선 8경기를 모두 휩쓸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여자부 결승에서는 브라질이 미국을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올림픽 첫 금메달의 감격을 누렸다.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올림픽에서 4회 연속 여자배구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쓴 맛을 본 브라질은 5차례 도전 끝에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